

교제와 나눔

** 선교교회에 처음 나오신 형제 자매들을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

- 제직회: 다음 주일
- 디아코니 축제: 9월 10일 주일 10시 연합예배, 본당. 음식바자로 함께 함.
- 여선교회 모임: 오늘 2부 예배 후 본당(디아코니 바자 준비 건)
- 자유나라 모임: 9월 1일(금) 19:30 서민규 님 가정
- 말씀일기 은혜 나눔 신청: 민경웅 예배부장
- 바이블12 수강 신청: 9월 10일 주간 개강 예정
강의 일시는 수강생들 의견 수렴, 온라인 강좌(90분 x 30)
- 교회창립40주년 기념 말씀일기 문집 원고:
개인당 2~3편 9월 15일까지 배진우 님께
자녀들도 다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힘써 주세요.

집사 권사 선거 위한 공동의회 공고: 1차-10월 29일 주일, 2차-11월 5일 주일
(10월 초에 선거권자, 피선거권자 명단 공고 예정)

◆ 말씀일기 일정

일/시편90:1-17 월/시편91:1-16 화/시편92:1-15 수/시편93:1-5
목/시편94:1-23 금/왕상1:1-10 토/왕상1:11-27 일/왕상1:28-37

- ◆ 114 운동-하루(1) 한번(1) 말씀일기 & 성경 (4)장 통독
성경 300독 대행진: 210독

◆ 예배위원 안내 ◆

	8월 27일	9월 3일	9월 10일	9월 17일
예배기도	박성희	최수정	서민규	권순아
말씀일기	김영희			
안내위원	예배부			
헌금위원	김호정, 서영지	민경웅, 석호선		
애찬위원	밥상 일곱	밥상 여덟	밥상 하나	밥상 둘

40-35호

2023년 8월 27일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시편 98:1)



주일예배 12:00 Teestube 믿음방
14:00 Mutterhauskirche
유초등부 14:00 Teestube 평화방
청소년부 14:00 Teestube 믿음방
청년부 모임 15시 30분 Teestube 믿음방
토요기도회: 07:00 Teestube 믿음방



담임/ 손교훈 목사 Kyo-Hoon Sohn
☎ 02131-5249 186 HP. 0176-5779 1004
교육/ 이동훈 목사 HP. 01525-2367 629
교육/ 박승은 목사 HP. 0157-3845 5550
선교협력/ 이광열 목사 HP. 0157-7388 7498

1983년 5월 8일 창립

뒤셀도르프선교교회

교회 홈페이지 duemission.de

교회당 주소 Alte-Landstr. 179, 40489 Düsseldorf

주 일 예 배

인도: 손교훈 목사

※입례송/Eingangslied	왕이신 나의 하나님	다 함 께
※예배부름/Eingangsgebet		인 도 자
※찬송/Gemeindelied	1장	다 함 께
※신앙고백/Glaubensbekenntnis		다 함 께
성시교독/Wechselwort	교독문 53번	다 함 께
찬송/Gemeindelied	446장	다 함 께
기도/Gebet		박성희 집사
말씀일기/Bibeltagebuch		김영희 권사
찬양/Chor	주 예수 이름 소리 높여	찬 양 대
성경봉독/Text zur Predigt	창 39:19-23	인 도 자
설교/Predigt	유혹을 물리친 후	손교훈 목사
찬송/Gemeindelied.....	438장	다 함 께
봉헌/Kollekte.....	나의 안에 거하라	이 태 하
교제/Bekanntmachung.....		다 함 께
※주기도송/Vaterunser.....		다 함 께
※축도/Segen		손교훈 목사

※ 표는 일어섭니다.

교회 구좌

Ev. Presbyterianische Kirchengemeinde e.V.

Bank: Stadtparkasse Düsseldorf

IBAN: DE61 3005 0110 1008 4019 01

▶ 김영희 권사의 말씀일기 렘25:30-38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이해’ ◀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늘 유다 백성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계속해서 죄를 짓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결국 “이 민족들은 칠십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고 말씀하신다. 예레미야 당시에도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알아듣고 무릎꿇는 사람은 극히 소수에 불과했으리라 생각이 된다.

이러한 성경의 말씀은 오늘을 사는 나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다. 33절: “그날에 여호와에게 죽임을 당한 자가 땅 이끝에서 땅 저끝에 미칠 것이나,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고 시신을 거두어 주는 자도 없고 매장하여 주는 자도 없으리니, 그들은 지면에서 분토가 되리로다.” 이 무서운 말씀을 대하면서, 이 철저한 심판을 선언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만큼 마음이 아프도록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게도 나를 인격적으로 대해 주시는데, 그분의 사랑과 자비를 외면하고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고개를 뺏뺏이 들고 행하는 나의 교만 때문이다.

예레미야는 눈물로 그 민족을 향해 외쳐댔다. 그것은 지금 나에게도 외치는 소리이다. 나는 나 자신을 보고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의 현주소가 어디에 있는지... 옆길로 새기도 했고 뒷걸음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신다.

또한 나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근본을 깊이 묵상해 보길 원한다. 그것이 단지 하나님의 징계만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까지 하신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에 깊이 감사하면서 내 모든 삶을 드리기를 소원하며 기도하는 아침이다. 아멘!